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결** | 비매품(통권 제320호)

발행일 2010년 6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제 320 호

2010. 6. 10

스산의 숨결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월간 스산의 숨결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OPEN THE HOPEFUL FUTURE OF SEOSAN!



서산문화원



Contents

- 03 낙토서산(樂土瑞山)으로의 초대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19世紀 海美 地方에서의 천주교 信俸 (조 광 / 고려대학교 교수)
- 06 6월의 표준영정 (을지문덕(乙支文德))
- 08 단오
- 12 정약용 『다산시문선 (茶山詩文選)』 (문성환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14 일본의 박물관 이야기 (이강열 / 학예연구사)
- 16 서산문화탐방을 마치고... (유영순)
- 19 영화이야기 (윤유경 / 영화기고가)
- 22 단청의 세계, 그리고 색의 조화 (김원숙 / 단청강사)
- 24 청양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정재권 / 청양문화원장)
- 26 내포디자인포럼
- 28 '세발낙지' 가녀린 맛을 즐겨라 (홍윤경 / 서산요리학원원장)
- 30 성년례
- 32 문화원소식
- 33 시정소식



Caver Story

:

표지디자인 _ '단청'

단청색의 어우러짐처럼 서로 조화롭게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자.



단오 한마당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고 여름을 맞이한 준비를 하는 단오(음 5.5)! 단오절을 맞이하여 여름맞이 체험행사와 민속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놀이도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 연 제 | 6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 어디서 | 중앙호수공원 광장일대

※ 우천시 다음날로 연기합니다.

공연마당 판굿(마패예술단)

체험마당 도자기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천연염색, 우산만들기, 창포비누 만들기, 화전만들기 등

민속놀이 손가마타기, 투호, 팔씨름, 제기차기 등
(경기별 상품마련)

단오절계절음식도 나누어먹어요~

■ 문 의 : 669-5050 (서산문화원 사무국)

<http://seosan.cult21.or.kr/>

※ 행사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산 문 화 원



낙토서산(樂土瑞山)으로의 초대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동북아의 흙진주라 불리도 손색없는 역사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땅,
참으로 좋은 땅이기에 그 이름을 瑞山이라 명명했고 전설적인 얘기 같지만
옥황상제께서 점지해 놓은 땅 낙토(樂土)입니다. 하늘의 중심인 자미원 별자리가
내려주는 기(氣)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천문과학의 거성이시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드신 류방택선생이 탄생하신 곳이
서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미원 별자리의 기를 받고 있는 서산은 세계를 지도할 큰 인물이 탄생한다는 국내외 풍수학자들의
얘기가 한결 같습니다.

500년의 긴 역사를 고스란히 앓고 있는 굴포운하 유적지는 우리조상들께서 국운이 달린 운하굴포의
대업을 이루고자 혼을 바친 곳입니다.

동북아 외교와 문화의 선두에 있던 해상교류 왕국이 있던 백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대중국
사신과 문물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부성산성과 닻개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
습니다.

세계 최대의 천주교도의 순교지인 해미읍성이 아직도 그 숨결이 생생하며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서산 특유의 자랑거리는 먹을거리라고 봅니다. 서산 땅은 위도상으로 볼 때 4계(四季)가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동식물이 겨울잠을 충분히 자면서 먹을 것을 조절하여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수만 년 동안 날아온 황사에 의한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황토는 각종 미네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맛좋은 동식물을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와 토양의 좋은 환경은 각종 꽃 색깔을 가장 아름답게 피운다해서 전국의 꽃 재배 농가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세계 3대 갯벌 중 하나인 서산의 갯벌은 영양이 풍부하게 함유 되어 살아 있는 갯벌로 이곳에서 나오는
낙지와 각종 어패류의 맛은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3대 화가 중 한분인 몽유도원도 작가 안견 선생이 출생하여 그 기념관을 갖고 있으며
천수만의 철새는 서해안에 지는 낙조와 어우러지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기가기한 풍광을 지닌
리아스식 해안의 가로림만을 접하다 보면 조개속의 흑진주처럼 아름다운 서산 땅에 매료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천기(天氣)도 받고 좋은 경관을 보면서 건강에 좋은 맛 좋은 먹을 거리를 즐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서산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19世紀 海美 地方에서의 천주교 信俸

조 광
(고려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海美地方에의 천주교 전파와 박해
3. 丙寅敎難期의 海美
4. 맺음말

IV. 맺음말

해미지방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때는 1784년 교회가 창설된 직후로 추정된다. 이 때 ‘내포의 사도(內浦의 使徒)’로 불리는 이존창(李存昌)은 충청도 내포지방 일대에 천주교를 전파했고, 그 과정에서 해미(海美)에도 천주교 신앙이 알려져서 후일 이곳에서 서학운동(西學運動)이 일어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서학(西學) 즉 천주교와 관련하여 해미가 문헌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799년이였다. 그 이후 해미는 주로 신도들의 처형지나 구금처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1811년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학사건(邪學事件)’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면, 이 때에 이르러 이곳에서 천주교 신도들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839년 기해교난에 이르기까지 해미와 관련된 18명의 신도들의 행적이 확인된다.

19세기 해미지방에서 천주교 신앙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1860년대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이르러 이곳에서는 적지 않은 신도들의 존재가 발견된다. 그리고 1866년 병인교난을 당하여 이곳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군현에서 이송되어 오는 신도들을 처형하는 곳이 되었다. 해미는 한 때 내포지방의 8개 군현 가운데 유일하게 진영(鎭營)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도들에 대한 처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해미에서는 1868년 4월 ‘오페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도들에 대한 집단 처형이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은 생매장을 당하기도 했다.⁴³⁾ 1866년에서 186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병인교난의 과정에서 이곳에서 순교한 117명에 이르는 순교자를 문헌자료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순교자는 이 숫자보다도 분명히 많은 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순교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순교자의 수가 대략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에는 문헌적 사료 근거가 전무(全無)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미지방의 순교자 숫자에 관한 과도한 추정은 피해나가야 할 것이다.

원래 순교자란 그 수적(數的) 다과(多寡)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그 증거적(證據的) 죽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순교란 양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질적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 한 명의 순교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부여 여하에 따라서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은 해미지방의 순교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적용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미지방에서의 서학운동 내지 천주교 신앙운동과 그 순교자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19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 충청도 내포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천주교 신앙운동을 확인하며, 성리학 중심의 조선왕조 사회가 붕괴되어 나가는 과정을 점검했다. 천주교 신앙은 당시 사회에서 비특권적 피지배층에 의해 실천되던 사회운동이었던 바,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구체적 전개상을 해미에서의 순교라는 사례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43) 趙珩, 위의 글, 128쪽. 이 생매장자는 1935년 바로(Barraux) 신부에 의해 해미면 초산리에서 발굴 확인되었고, 현재 이곳은 성역화 되어 있다.

을지문덕(乙支文德)

생몰년대 미상

지략과 무용에 뛰어난 장군으로서 국·내외에 두루 명성을 떨쳤음

● 중국 수나라는 612년(영양왕 23) 신라, 백제를 압도하고 만주와 연해주 유역에까지 뻗어있던 고구려를 탐내어, 중국을 통일한 여세를 몰아 수 양제가 직접 출군하여 우중문, 우문술 및 113만여의 대군을 이끌고 수륙 양군으로 고구려를 침범하였다.



고구려의 명장

● 양군이 압록강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장군은 직접 적정을 살피기 위하여 거짓으로 항복, 적군이 원로에 극도의 피로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적군이 이 사실을 알고 추격하자 적의 군사력을 소모시키기 위하여 거짓패배를 가장, 일곱 번 싸워 싸울 때마다 지는 척하며 평양성 30리 밖까지 유인하였다.

● 이 때 장군은 적장 우문중에게 “귀신같은 책략은 천문을 궁구하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다. 싸움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죽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란 희룡의 시를 보냈다. 비로소 술수에 빠진 것을 깨닫고 수나라는 지친군사로 회군하자, 살수에서 크게 무찔려 대승하였다. 30여만의 수군중 살아서 돌아간자는 2,700명 이었다고 한다.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살수대전은, 100만이 넘는 군사력 규모 및 전쟁 승패에 따른 사후 영향 등을 살펴볼 때, 동양사에 있어서 최대 전쟁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살수대전은 중국 전역을 통일한 수와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와의 양국의 운명을 건 대혈전이었으며, 전쟁 결과 패전으로 인하여 급격히 발흥했던 세계적인 대제국 수나라는 망하고, 중국엔 새로이 당나라가 들어서는 등 동양권에 일대 대변화를 몰고왔던 최대규모의 전쟁 중 하나였다.

실로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은 우리 민족인 고구려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크나큰 영웅이었다.

[作品] 與隨將于仲文

[文獻] 三國史記 申采浩：乙支文德 等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1975

제작작가：운보 김기창

영정제공 및 저작권자：(재)운보문화재단

영정크기：84 X 120 (가로X세로cm표시)

소장지및소장인：한국은행





■ 단오의 어원

단오는 일명 수릿날[戊衣日·水瀨日],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단(端)'자는 첫번째를 뜻하고, '오(午)'는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한다. 중오는 오(五)의 수가 겹치는 5월 5일을 뜻하는 것으로 양기가 왕성한 날로 풀이된다.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奇數]를 '양(陽)의 수'라 하고, 짝수[偶數]를 '음(陰)의 수'라 하여 '양의 수'를 길수(吉數)로 여겼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절일(節日)로서 설(1월 1일)·삼짇날(3월 3일)·칠석(7월 7일)·중구(9월 9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절은 '양수(陽數)'를 '길수(吉數)'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이러한 기수민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5월조의 기록에 전한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또 수리란 고(高)·상(上)·신(神) 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어(古語)인데,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불리워졌다고도 하며, 일설에 의하면 단오의 유래와 더불어 중국의 초(楚)나라 사람 굴원(屈原)이 수뢰(水瀨)에 빠져 죽었다 하여 수릿날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 단오의 유래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懷王)때에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굴원(屈原)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하여 먹라수(汨羅水)에 투신자살하였는데, 그날이 5월 5일

이었다. 그후 해마다 굴원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단오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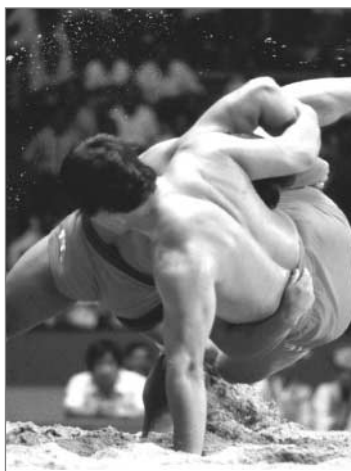
■ 단오의 풍속

입하(立夏)와 소만(小滿)을 지나 음력 오월(五月)이 되면 태양의 열기가 뜨거움을 더해 간다. 오월의 절기(節氣)로는 망종(芒種)과 하지(夏至)를 들수있다. 절기는 태양의 운행에 기초를 둔 것이며, 농사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망종은 보리나 벼와 같이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을 거두거나 모를 내는 절기이며, 하지는 낮시간이 가장 긴 절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농사력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오월조의 농사관련 부분에 잘 나타난다.



〈청포물에 머리감기〉

문앞에 터를 닦고 타맥장하오리라 도리깨 마주서서 짓내어 두드리니 잠농을 마를 때에 사나이 힘을 빌어 누에섬도 하려니와 고치나무 장만하소 오월오일 단오날 물 색이 생신하다. 외밭에 첫물따니 이슬에 젖었으며 모찌기는 자네하소 논심기는 내가 함세 들깨모 담배모는 머슴아이 마타내고 가지모 고추모는 아이딸너 하여라. 맨드람 봉선화는네 사천 너무마라.



〈단오의 대표적 놀이〉

오월은 여름철 세시풍속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명일로는 5월 5일(음) '단오날'을 들 수 있다. 단오날은 고려시대의 9대 명절에 속하였고, 조선시대 에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에 속하였다. 단오는 일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생각하여 여러가지 풍속과 행사가 행해졌다. 전통사회에서 농가의 부녀자들은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여 창포뿌리를 잘라 비녀로

만들어 머리에 꽂아 두통과 재액(災厄)을 막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더하게 하였다.

또 단오날 새벽 상추밭에 가서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 버짐이 피지 않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한다. 남자들은 단오날 창포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이는 벽사(邪)의 효험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단오날 중에서도 오시(午時 : 오전 11시~오후 1시)가 가장 양기가 왕성한 시각으로 생각하여 전통사회의 농가에서는 약쑥, 익모초, 찔레꽃 등을 따서 말려 두기도 한다. 말려둔 약쑥은 농가에서 화를 만들어 일을 할 때에 불을 붙여놓고 담뱃불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오시에 뜬 약쑥을 한다발로 묶어서 대문 옆에 세워두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재액을 물리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농가에서는 대추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는 습속이 있는데, 이를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 한다.



〈단오제〉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을 들 수 있다. 그네뛰기는 단오날 여성들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 신윤복의 '단오 풍정'을 보면 한복을 차려 입은 부녀자들이 치마폭을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남성들의 놀이로 씨름대회가 있다. 씨름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관례로 황소를 상품으로 주는데, 경기 방식은 요즘과 같이 토너먼트식이 아니라 도전자들을 모두 이겨 상대자가 없게 되면 우승을 하게 된다.

한편 지역민들의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의례로서 '단오제'와 '단오굿'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강원도 강릉지방의 강릉단오굿, 경남 영산의 문호장굿, 경북 자인의 한장군놀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의례들은 각종 놀이 및 행사들과 접목되어 지역민의 축제형식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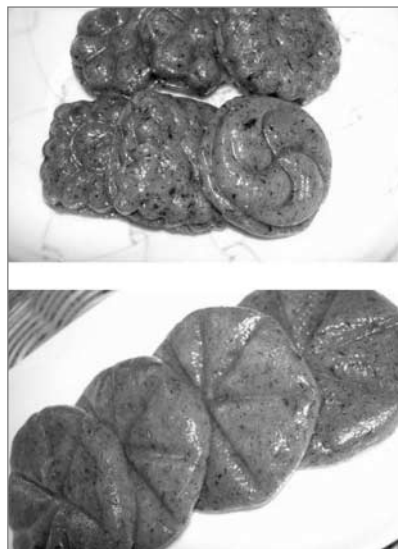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간행된《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5월 조의 기록에 의하면 "궁중의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옥추단(玉樞丹)과 제호탕(題湯)을 만들어 왕에게 진상하였다.", "공조(工曹)에서는 단오선(端午扇)을 만들어 왕에게 진상하였다."는 궁중풍속이 전한다. 제호탕은 한약재를 꿀에 섞어

달인 약으로 더위가 심한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옥추단은 일종의 구급약으로 여름철 곽란이 났을 때 물에 타서 마신다.

부채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도구로 단오 무렵이면 더위가 찾아오니, 이날 부채를 만들어 왕에게 진상한 것을 '단오선'이라고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단오의 세시풍속은 더운 여름철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와 신체단련을 위한 놀이, 재액을 방지하기 위한 습속, 풍농을 바라는 의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 단오의 시절음식

단오의 시절음식으로는 수리떡과 약떡이 있다.《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날은 쑥잎을 따다가 찌고 멥쌀 가루 속에 넣어 반죽을 하여 초록색이 나도록 하여 이것으로 떡을 만든다.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으로 빚어서 먹는다."라는 풍속이 전한다. 이것이 바로 수리떡을 가리키는 것이다. 약떡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전하는 시절음식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떡을 하는 예가 잘 없으나, 떡을 할 경우에 5월 4일 밤 이슬을 맞혀 두었던 여러 가지 풀을 가지고 단오날 아침에 떡을 해 먹는데, 이를 약떡이라고 한다. 앵두가 제철인 단오무렵이면 앵두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하며, 아이들의 주전부리로 옥수수나 쌀 등을 튀겨 주기도 한다. 또 이 날은 새 쑥을 넣어 만든 떡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상례이다. 제주도에서는 보릿가루에 누룩을 썩어서 부풀게 만든 기루떡과 곤떡·새미떡·인절미·표적·울적·해어·실과 등을 제물로 사용한다.



〈수리떡〉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정약용 『다산시문선 (茶山詩文選)』

- 유배지에서 얻은 자유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다. 수백권의 저작을 남긴 학자로, 정조 임금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문인 관료로, 혹은 오랜 세월 강진 땅에 유배된 비운의 서학자(西學者)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다산은 호기심과 소문으로 소비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가 평생을 통해 남긴 수백권의 저작은 오늘날 거의 읽히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단편 지식 몇 개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그가 십수년간 머물렀다는 ‘다산초당(茶山草堂)’을 관광지로 방문하는 정도일 뿐!



그런 점에서, 다산의 시문(詩文)은 우리와 다산을 매개해주는 훌륭한 지름길이다. 다산은 왕성한 저술가답게 여러 편의 시문을 남겼다. 시문은 우리에게 인간 다산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18년간이나 계속된 그의 오랜 유배 생활은 그가 남긴 많은 편지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그 속에서 다산은 학술적 연구자 외에도 한 사람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적 담백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폐족(廢族)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런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구석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쳐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도 있는데다 중간에 재난을 만난 너희들 같은 젊은이들만이 진정한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1802. 12. 22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유배지에서 다산은 편지를 쓴다. 큰 아들 학연에게, 둘째 아들 학유에게, 혹은 조카 학초에게! 너희들은 폐족(廢族)이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남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폐족은 인생 막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폐족은 참다운 독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권리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마음껏 그 권리를 누려라. 폐족은 비록 고위 공무원은 될 수 없지만, 성인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 독서의 근본은 효성(孝)과 공경하는 마음(悌)에 있음을 명심하라!

다산은 둘째 형님 정약전에게도 편지를 보낸다. 형님, 지난번 보내주신 형님의 견해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논평해주세요. 형님, 흑산도의 수백마리 들개들을 가만 놔두고 영양 실조를 걱정하시다니요. 여기 박제가의 개고기 요리법을 보내드립니다.

다산의 사십대와 오십대는 이렇듯 물도 바람도 기후도 낯선 먼 땅끝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이 흘러가 버렸다. 그곳에서 그는 수백권의 저술과 훗날의 영예를 얻는 대신 가족과 그 자신의 건강을 잃었다. 때문에 다산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몽클한 감동은 그가 남긴 수백권의 저서나 그의 학문이 갖춘 위엄 이전에, 유배라는 고립된 환경과 18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버텨낸 그의 초인적인 의지로부터 먼저 온다.

다산의 삶에는 쉬는 페이지가 없다. 그는 언제나 바빴다. 아마도 이것은 다산 스스로 참된 선비의 학문은 늘 쓰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줄 군주도 세력을 가진 친구들도 주위엔 없게 되었지만 학문과 지식의 쓰임이 반드시 정책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이제까지 자신의 언설을 최종 수신하던 군주(정조임금)의 빈 자리를 객관적이고 확실한 ‘읽’(지식)으로 대체시켰다(다산학의 출발!). 이를 위해 다산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관찰하고, 정리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저술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지식인이 자신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정직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일본의 박물관 이야기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박물관이 있어야한다는 공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각종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발굴조사하여 출토된 다수의 유물이 있고 이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사적 제475호로 지정된 부장리 유적에서 금동관이 출토되면서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공론은 그만큼 일반인들이 느끼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박물관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은 문화재조사를 통해 수집된 유물을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전시, 그리고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학예연구사
이강열

일본의 경우 지역에 많은 박물관과 전시관, 미술관, 그리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구등 문화재 관련 기관이 있어 문화재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박물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논의로 찬반양론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박물관에서 진보하여 전시 테마와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박물관이 지어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통해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일본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박물관의 건립에 있어 기획단계부터 건립에 이르는 기간은 박물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 오사카의 狹山池(사이케야마)박물관을 예로 든



〈狹山池(사이케야마) 박물관은 댐건설과정에서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다면 기획구상으로부터 기본설계를 걸쳐 전시설계, 박물관을 개관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만큼 박물관 건립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하는 사업인 것이다.

일본에서의 박물관에 대한 외적인면(건물)과 내적인면(전시)을 살펴보면 우선 외적인 건물은 외관상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게 설계를 하고있다. 위에 예로 든 狹山池(사이케이야마)박물관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타타오가 狹山池(사이케이야마-저수지)와 관련한 수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건축물로서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내적인 면인 전시의 경우 건물설계를 하면서 전시할 유물의 전시계획에 맞춰 내부인테리어를 하여 전시를 하고있다. 이는 다지어진 건물에 전시계획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반대이다. 최근 전시경향은 동시대적으로 유물을 전시하기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별 박물관이 주를 이루고, 특히 박물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박물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은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대략 40대부터 고령에 이르는 여성 관람객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또한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찾게 하고 있었다.



〈一支國 (이키코쿠)博物館의 내부모습 - 개방된 공간으로 박물관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박물관도 이런 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박물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다른 성격의 건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한곳에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 자체적으로도 문화재 전시 뿐만 아니라 문화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박물관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지역의 문화창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을 담을까? 그리고 박물관에 오는 사람이 박물관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박물관은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은 그 다음부터인 것 같다.

서산문화탐방을 다녀와서...

유 영 순

친구가 들고 온 벼룩시장을 통해 서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서산문화탐방”이라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행사일정에 잡힌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개심사 등의 답사지는 내가 일 년에 몇 번씩 찾는 곳이었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고장의 문화재만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되어 함께하게 되었다.

집결지인 서산문화원 마당에 모여 서른여덟명이 함께 출발했다. 출발하면서 김재신 문화해설사의 안내가 시작되자 통로 건너편 옆자리에 앉은 회원이 수첩과 필기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을 보고 아차 싶었는데, 나중에 이준호 문화원장님께서 답사에 참가한 이들의 자세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메모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셨다.

설명을 들을 때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몇 시간이 흐른 뒤 그것을 되새기려하니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메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하루이기도 했다.

첫번째로 찾은 서산마애삼존불상.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84호로 지정되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애삼존불상에 대해 내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모습)



(서산마애삼존불)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일년에 몇 번씩 찾아와 보는 곳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 등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나보다. 그동안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제대로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석가여래입상 양 옆에 새겨진 분이 과거를 의미하는 제화갈라보살과 미래를 의미하는 미륵불이란 것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 말이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삼존불의 미소.

한없이 자비롭고 평화로운 석가여래입상의 미소와 아이같이 천진한 미륵반가사유상의 미소.

저 미소를 조각하던 백제 석공의 땀방울 속엔 어떤 미소가 배어있었을까?

삼존불의 미소로 배움을 받으며 보원사지로 향했다.

당간지주와 석조, 오층석탑등의 배치로 보아 중흥기에는 그 규모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전날 비로인해 개울물이 불어나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오층석탑과 법인국사부도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멀리서 바라보며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일정에 포함되어있던 명종대왕 태실은 구제역 방역 때문에 목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천년고찰 개심사로 향했다.

전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아름다운 적송 오솔길과 해우소 겹벚꽃 연못 등으로 유명한 개심사는 산문에 들어서면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지금은 일주문이 세워져 있지만, 일주문이 없었을 때는 절 입구의 연못 한가운데 놓인 외나무다리가 일주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에 들어설 때는 연못의 나무다리를 건너서 갔다고 한다.



나는 이 연못과 연못가에 서 있는 배롱나무를 좋아한다. 연못에 비친 배롱나무는 서 있는 배롱나무보다 더 여유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물은 맑음보다 고요함이 한 수 위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오래전에 먹을 갈다가 벼루에 담긴 까만 먹물에 맑게 비쳐진 내 손을 보고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용비지의 벚꽃반영 사진을 찍을 때도 개심사 연못의 배롱나무 그림자를 보면서도 주변을 아름답게 비추는 것은 물의 맑음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열흘전에 찾았을 때의 개심사는 온통 꽃 대궐의 모습이었는데, 은은한 푸른빛을 띠던 청벚꽃도 지고 해우소가는 길에 붉게 타던 만첩홍도도 지고 화려하던 겹벚꽃도 앞에게 자리를 내준 채 꽃잎은 낮은 곳을 찾아 땅으로 내려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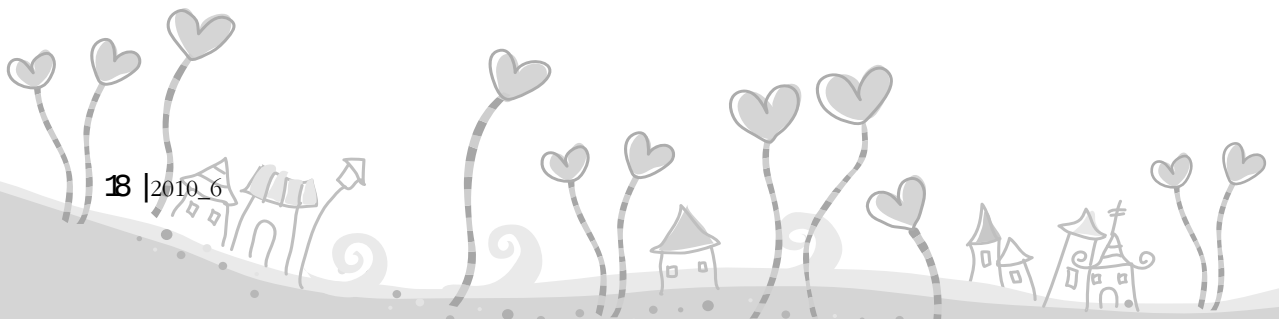
떨어진 꽃잎을 보면서 꽃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용현계곡과 개심사의 나무와 꽃을 보면서 나중에 문화해설과 함께 숲 해설도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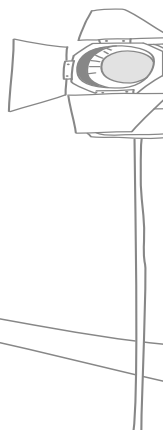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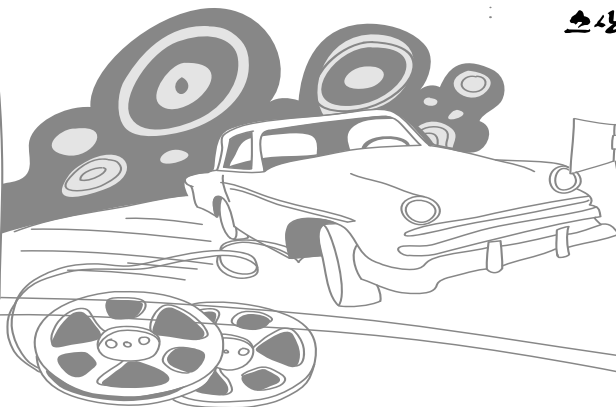
안양루 마루에 앉아 대웅전과 심검당 등 건축물에 대한 설명과 불교의 사물인 목어, 운판, 법고, 범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명부전을 둘러보았다.



차례로 해미읍성과 정순왕후 생가 김기현 가옥에 들러 문화해설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리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메모도구도 꼭 챙기고 말이다. 너무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늘 함께한 “서산문화탐방”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고장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무척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영화 이야기

윤 유 경 (영화기고가)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맛의 도시를 뜨겁게 달궜던 제 11회 전주 국제 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열흘 뒤, 프랑스 칸에서는 세계 영화계를 들썩이게 한, 제 63회 칸 국제 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열었다. 그리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 영화는 지난 해에 이어 당당히 수상 소식을 알렸다.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들. 그 중심에 영화제가 있다. 영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나 보자.

■ 세계 3대 영화제- 칸 · 베니스 · 베를린

○ 칸 영화제

매년 5월,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 칸에서는 약 2주간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제가 열린다. 예술로서의 영화를 지향하는 한편, 내로라 하는 세계 영화 세일즈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예선을 거친 영화들 중, 장편 · 단편의 최우수작품에 각각 그랑프리가 수여되며, 감독상 · 남우주연상 · 여우주연상 ·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시상한다. 우리나라는 1984년 '몰레야 몰레야' (이두용 감독)가 특별상을 수상한 이래, 지난 해인 2009년 '밀양' (이창동 감독)의 주인공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올해는 '시' (이창동 감독)가 각본상을, '하하하' (홍상수 감독)는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수상하였다.



○ 베를린 영화제

매년 2월 중순에 약 10일간에 걸쳐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독일의 통일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1951년에 시작되었으며, 포츠담 광장 일대의 상영관에서 공식 경쟁부문 외 다양한 섹션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1961년 '마부' (강대진 감독)가 특별 은곰상을 받은 것이 한국 영화의 주요 국제 영화제 진출의 시초로 꼽힌다.

○ 베니스 영화제

1932년에 시작되어, 매년 8월 말~9월 초의 2주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국제 영화제이다. 경쟁 영화제로 시작하였다가 1969년부터 모든 상을 없앴으나, 시상제가 없어지면서 치열한 열기 또한 사그라들자, 1974년부터 다시 콩쿠르 형식으로 재개하였다. 1987년 '씨받이' (임권택 감독)로 강수연이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 그 외

현재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영화제가 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스크바, 몬트리올, 동경 등 각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에서 다양한 영화제는 계속된다.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설립한 선댄스 영화제는 전세계의 재능있는 독립영화 및 신인감독들을 발굴해 내는 장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이어 오는 영화제 중의 하나이다. '내일을 향해 쏴라' (조지 로이 힐 감독)에서 레드포드가 맡았던 반항아 캐릭터 선댄스처럼, 수많은 영화제의 악동들이 이 영화제를 거쳐갔다. 코언 형제, 쿠엔틴 타란티노 등이 대표적인 선댄스 키드이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북미 영화 시장의 메카로서, 이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이 대부분 커다란 흥행을 거두어 '관객상의 영화제'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홀짝 떠나기에 바다 건너 땅이 부담스럽다면 우리 나라 안에도 20여개가 넘는 영화제가 있다.
곧 다가올 영화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 보자.

■ 조금 더 가까이 - 국내 주요 영화제

○ 제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환상의모험속으로!” (일시 : 2010년 7월 15일~25일)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를 표방한다. '환상', '모험', '실험'의 기운을 영화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장르 영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있는 영화들을 폭넓게 소개하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각광받고 있다.

○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일시 : 2010년 8월 12일~17일)

음악영화의 장르화와 대중화를 꿈꾸며 시작된 아시아 최초의 음악 영화제이다. 청풍호반과 제천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무대)

내를 오 가며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영화는 때로 호수의 바람으로 땀을 식혀주고, 때로 한여름의 열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한다. 여름과 닮은 축제, 그리고 그 뜨거운 계절처럼 다시 되돌아올 청춘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와 도심 속에 펼쳐지는 영화의 향연” (일시: 2010년 10월7일~15일)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해운대와 남포동의 피프 광장을 아우르며 세계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메인 섹션인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며, 유일한 경쟁부문인 '뉴 커런츠: 새로운 물결' 부문을 통해서도 새로운 경향의 영화들을 공개한다.

○ 그 외

서울 국제 여성영화제 (4월, 서울), 서울 환경영화제(5월, 서울), 퀴어문화축제(5월, 서울), 이주노동자영화제(7월, 서울), 서울 국제 가족영상축제 (10월, 서울), DMZ다큐멘터리 영화제(10월, 경기 파주)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 내 고장 축제 - 충청도에서 열리는 영화제

○ 제4회 공주 신상옥청년영화제 (일시: 2010년 10월 5일~9일)

다양하고 역동적인 한국 청년 문화를 담은 영상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 문화의 현상과 우리 문화의 미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이 영화제의 청년 중심적 성격은 다분히 미래 지향적이다. 공주금강둔치공원, 공주대학교,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일대에서 향후 미래의 영화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의 장을 펼친다. 주요 행사로는 비보이 공연 및 댄스 퍼포먼스, 락과 타악 페스티벌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명 인사의 팬사인회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아직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10회를 맞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10월, 대전)과 제 4회 대전 독립영화제(11월, 대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비 오는 날이면 수첩에 적어두었던 여배우 이름을 읽어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 장면을 회상하는 버릇이 있었다. (‘장수(長壽) 中’)고 말하는 피천득 시인은 한때 인연이었던 아사코의 우산을 추억하며 영화 ‘셀부르의 우산’을 보았을 것이다. 마음이 일렁대는 날이면 누군가는, 불을 끄고 잠을 청하는 대신 추억의 영화를 본다. 순간, 여행과도 같은 시간이 떠오른다. 다가오는 휴가철, 다른 시간, 다른 도시에서 다양한 영화와 만나 보는 것은 어떨까. 혼자든, 좋은 사람과 함께든, 영화 속 이야기와 축제의 열기는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단청의 세계, 그리고 색의 조화

우리나라에 단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책은 삼국사기 제48권 술거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던 술거는 황룡사 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줄기는 비늘처럼 터져 주름지었고 가지와 잎이 열기설기 서리어 까마귀, 제비, 참새가 가끔 날아와서 앉

으려고 허둥대다 떨어지곤 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색이 바래서 스님이 단청에 손을 보자 새가 그 후로는 날아들지 않았다.]

우리는 사찰이나 궁궐 제실 등에서 단청을 볼 수 있다. 평범하지 않은 어쩌면 특별한 공간에 서 볼 수 있는 단청. 단청은 건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 등에 그림이나 무늬를 넣어 색칠하는 것이지만 건축물 외에도 공예품이나 고분 불화 동굴 등의 그림도 단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단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목조건물의 특성상 썩는 것을 막아주고 건물의 생명이 오래가기 위함이며, 둘째는 사찰이나 궁궐 등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셋째는 나무의 갈라진 틈이나 웅이를 감추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단청의 종류를 알아보면 가장 기본이 되며 바탕색만 칠하는 가칠단청, 흰색과 검은 색으로 좁은 줄을 긋는 굵기단청, 중요부재 가장자리에 하는 모로단청, 마지막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금단청이 있는데 사찰의 중심법당에

금단청을 올린다. 사람들은 실제 금을 칠해서 금단청인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통 문양중 금 문양을 그려 넣어서 금단청이라 한다.

단청은 오방색을 사용하는데 붉은색, 푸른색, 황색, 흰색, 검정색을 쓴다. 그 색 속에는 음양오양이 들어있다. 붉은색은 여름과 남쪽방향과 불[火], 푸른색은 봄과 동쪽방향과 나무[木], 황색은 환절기를 나타내며, 중심과 흙[土], 흰색은 가을과 서쪽방향과 쇠[金], 검정은 북쪽과 겨울과 물[水]을 나타낸다. 실례로 목조건물은 불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현판을 물의 기운이 있는 검정색을 칠하여 불을 막아 보려한 뜻이 그 속에 숨어있다. 다음에 사찰이나 궁궐에 가면 직접 현판을 한 번씩 눈여겨 보고 그 색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면 좋을 듯 싶다.



사찰의 템플스테이나 외국인에게 단청 올리기 체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별 관심 없이 보아온 단청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신기해하며 멋지다고 연신 말한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이 가진 큰 보물을 모르고 다른 것들만 너무 쫓으며 사는 것 같다. 한번쯤 내 자신의 좋은 점, 주위 사람들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단청색이 여러 가지 어울려 멋진 색을 내듯 나와 다른 색깔이라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단청색의 어우러짐처럼 서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자.



글쓴이 소개

김 완 숙

- 충북무형문화재9호 권현규선생 사사
- 현재 홍성문화원, 서산 부석사 템플스테이 등 단청 강사



(칠갑산절경)



우리 청양은 충청남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 우뚝 서 있는 산이 칠갑산(561m)이다.

칠갑산의 칠(七)은 천지만물의 생성 원리인 풍.수.지.화.공.견.식(風.水.地.火.空.見.識)을 갑(甲)은 천체운행의 원리가 되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으뜸인 甲子에서 연유되었다한다. 지난 1973년 3월 6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청양군 10개 읍면중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청남면 등 4개면에 걸쳐 있다. 칠갑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청양문화원장
정 재 권

첫 번째로, 칠갑산의 아흔아홉 고비를 고루 다닐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장곡사)

칠갑산 관광로는 면암 최익현 동상이 서있는 칠갑광장을 출발하여 천문대, 자비정, 칠갑산장곡사, 칠갑장승공원을 잇는 코스가 있다. 또 그 등산로를 역행하여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칠갑산 - 장곡사 - 칠갑산 정산 - 면암 동상이 있는 광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이용하는 등산객도 많다.

세 번째로 칠갑산 면암동상이 있는 광장에서 천문대 - 천장호와 출렁다리 - 정산 7층석탑 - 면암사당(모

덕사)를 거치는 코스도 있고 네 번째로 칠갑광장 - 장곡사 - 장승공원 - 천문대 등을 관람하고 칠갑산 자연휴양림에서 1박하고 고운식물원 - 화성 천주교 줄무덤 등을 관람하는 것도 유익할 일이다.

칠갑산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에는 진달래와 산철쭉, 벚꽃이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천연림이 현대인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어우러지며 겨울의 설경은 천상의 세계에 들어온 듯 한 느낌으로 다가와 사시사철 등산객들에게 독특한 묘미를 전해 주는 명산이다.



1970년 고운조경이 설립되어 조경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990년 약11만평의 청양농장을 매입하였으며 1997년 11월 식물원 조성인가를 받았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식물을 구입하고 식재하여 2003년 6월 5일 수목원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고운식물원의 설립취지는 일반인을 위한 자연학습장과 식물유전자원보존의 기능을 하며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과 교육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희귀종인 미선나무와 가시연꽃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6200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단풍나무 300종과 비비추류 300종 장미 280종 무궁화 260종 작약 40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22개의 작은 테마별 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원 내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관람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식물원에는 산양, 사슴, 염소, 반달곰, 공작, 오리 등 약간의 동물을 사육하는 곳도 있다



(칠갑산 출렁다리)

‘내포를 디자인한다’

내포지역의 디자인 발전과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포디자인포럼의 이사장 한기웅 교수를 만나보았다.

Q A

내포디자인포럼의 창립동기와 역사, 회원 등이 궁금합니다.

21세기는 기능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감성디자인이 환경을 가꾸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이 국내,외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포권역의 디자인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뜻 있는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디자인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2010. 1. 22. 창립되었으며, 2010. 6. 19. “내포 문화를 디자인 한다”는주제를 가지고 제1회 내포디자인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원은 지역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 지역 연고의 전문가, 그리고 국내 최고의 디자인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개발하는데 현실성을 배려하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A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연 2회(상, 하반기)의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내포권역의 미래를 여는 발전전략을 디자인적 시각에서 조망해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중앙의 발전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자인 교육도 적극 펼치고, 향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디자인 자원봉사단”을 발족, 지역주민들에게 주택(건물)디자인과 다양한 디자인서비스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A

내포디자인포럼이 특별히 내포지역을 한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포럼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포디자인포럼은 내포권역의 문화와 자원의 유용한 활용 방안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지역의 디자인포럼과 연대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내포디자인포럼이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디자인포럼이라는 것에 다소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이제

우리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지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LG, 현대 등 국내의 대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포디자인포럼은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앞으로 내포 디자인포럼이 성장하는 데에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A 우리 일상 속에서 디자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디자인은 우리 생활의 개선을 감성적인 언어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인공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감성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속에서 디자인적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과정에서 생활디자인을 학습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A 내포디자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현재 어려움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내포디자인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줄 수있는 생활공간의 제시입니다. 가장 먼저 생활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감성이 넘치는 디자인의 제시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태동기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내포디자인포럼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포럼을 통하여,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디자인 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때, 지역 디자인 개발의 성공이 담보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Q A 마지막으로 내포디자인포럼의 포부와 희망사항이 궁금합니다.

향후 내포디자인포럼은 내포권역의 환경디자인 개발을 인간의 삶과 함께 연계하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의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현실로 연결하는 실천방안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업이 디자인을 앞세워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앞으로 내포권역이 디자인과 융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감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내포권역 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발낙지’



가녀린 맛을 즐겨라!



어느 때보다 영양가 풍부한 먹을거리가 넘쳐 나는 시기, 세발낙지 요리로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

제철 맛은 야들야들 부드럽고 달콤한 세발낙지의 숨은 맛!

세발낙지는 사전 상 뜻으로 ‘발이 가늘다(가늘 細)’ 해서 세발낙지라 부른다. 무안과 신안 그리고 태안 가로림만에서 잡히는 빨 낙지가 유명하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말라빠진 소에게 낙지를 먹이면 금방 힘을 얻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낙지는 예부터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다. 특히 “봄엔 주꾸미, 가을엔 낙지”라는 말이 있지만 어린 낙지 즉, 세발낙지는 요즘이 제철이다. 밀이 익어 가는 무렵에 잡힌다 해서 ‘밀국낙지’라고도 한다. 낙지를 이용한 요리로는 산 낙지 회, 낙지호롱, 낙지볶음, 낙지숙회, 낙지 죽, 낙지전골 등이 있으며 부드럽게 끓여내는 박속밀국낙지탕(충청도식)-낙지연포탕(전라도식)도 별미다.



서산요리학원원장
홍 윤 경

■ 낙지의 효능

낙지는 ‘갯벌에서 나는 산삼’이라는 말처럼 낙지는 혈액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산모가 산 후에 몸 조리때 낙지를 넣고 끓인 미역국을 먹으면 좋다. 지혈작용과 새살을 빨리 돋게 하며 피부병이 있을 경우는 물론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 낙지의 주성분

낙지의 주요 성분은 타우린과 히스티딘 등의 아미노산이다. 이들은 갈슘의 분해 흡수를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 분해 효소도 풍부하다. 베타인 성분은 낙지 특유의 맛을 나게 한다.

• 박속밀국낙지탕 (4인기준)

: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죠~

- 재 료 : 세발낙지 12마리, 박속 300g,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마늘 5톨, 대파 1대, 칼국수 300g, 다시마 2쪽, 팽이버섯, 소금, 후추
- 양념간장 : 진간장, 2큰술, 국간장 1큰술, 청양고추 다진 것 1큰술, 통깨 약간, 고춧가루 1/2큰술

〈만들기〉

- ① 육수내기: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
- ② ①이 팔팔 끓으면 불을 끈 후 5분 뒤에 다시마는 건져내고 다시 끓인다.
- ③ 얇게 썰어놓은 박속을 육수에 넣고 한소끔 끓으면 준비한 야채를 적당히 썰어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④ 야채를 넣은 국물이 끓으면 낙지를 통째로 넣고 빨갭게 익으면 건져 먹기 좋게 잘라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 ⑤ 낙지를 다 건져 먹은 후 남은 국물에 칼국수나 수제비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 주는데 빨간 물이 면속에 흡수 되었을 때 먹으면 더욱 시원하고 부드럽다.



• 낙지볶음 (4인기준)

: 쫄깃하고 매콤한 맛, 센 불에서 재빨리 볶는 것이 중요

- 재 료 : 낙지 2마리, 양파1/2, 풋고추 2개, 홍고추 2개, 대파, 마늘, 생강, 소금, 밀가루, 식용유
- 양념장 : 고추장 2큰술, 진간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마늘 1/2큰술, 다진생강 1/2큰술,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 약간씩

〈만들기〉

- ① 낙지는 눈알을 떼어내고 내장과 먹물을 제거한 후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하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② 양파는 굵게 채썰고 풋고추, 홍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놓는다.
- ③ 분량대로 양념을 배합한다.
- ④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썰어 놓은 야채를 먼저 볶는다. 야채가 부드러워지면 손질한 낙지를 넣고 채소와 함께 버무리듯 익힌다.
- ⑤ 낙지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양념장을 넣고 재빠르게 볶으며 섞는다.
- ⑥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조금 더 볶아낸다.





...

서원대학교 차학과 임 현 화

올해 2010년 성년의 날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의지하고 어리광이나 부리던 일에서 이제는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성년이 된 것이다. 엄마가 하시는 일을 도와만 드리다가 직접 내가 성년이 되어 계자(성년례를 행할 여자)가 되어 참여를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성년례는 관혼상제 사례 중에서 첫 번째하는 통과의례인데 나처럼 사례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것이다. 아이가 어른이 된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절차로 대부분이 술을 먹이는 것이 성년의 날 행사였으나 나처럼 전통으로 성년례를 치루는 사람은 몇몇 안되는, 난 참 복 받은 아이다. 성년이 된다는 것이 나이만 성년이지 정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년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계자로서 성년식을 하면서 어제까지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했다. 빈(예를 주관할 주례자)이 들려주시는 축사들을 들으면서 덥고 지루하고 왜 빨리 끝나지 않는거야 생각했던 마음이 엄마가 보내준 가례축사와 서산문화원 원장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자(성인이 되었을 때 붙이는 이름)를 읽어보면서 부모님께 미안하고 나를 위해 힘들게 행사를 해주신 선생님 들께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길한 날 좋은 날에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니 이제부터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년이 되었

음을 축하하니 이제부터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년의 덕을 지니어라. 항상 몸가짐을 삼가고 어버이께 효도하여 밝은 가정을 밝은 사회를 너의 힘으로 이루고 사랑으로 남을 돕고 믿음으로 베풀 사귀며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라”라는 가례축사를 읽어보면서 새삼 많은 것을 느꼈다.



“아름답고 좋은 정자”라는 뜻으로 누구나 지치고 어려운 사람은 마음을 추스르고 쉴 수 있도록 넓고 고운 마음을 지나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아정(雅亭)”이라는 자를 마음에 꼭 새기면서 생활해야겠다. 또 “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산단다.”라는 말씀대로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오늘 이 성년식을 추억하면서 스스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는 몰랐지.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된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잔소리로만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빈껍서 주신 축사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엄마 핸드폰에 “착한딸 연화”라고 입력이 되어 있듯이 “아정”이라는 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 전통예절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년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성년식을 해주신 서산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언니 오빠들, 선다희 이모들, 문화원 이사님들과 내빈, 성년식을 보러와준 내 동생 현주, 옆에서 보살펴준 본희 언니, 그리고 부모님 모두 감사하다. 착하고 예쁘게 자라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

화

원

소

직

단오한마당

단오절을 맞이하여 여름맞이 체험행사와 민속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놀이도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 일 시 : 6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 장 소 : 중앙호수공원 광장일대
※ 우천시 다음날로 연기합니다.
- 행/사/내/용
 - *공연마당 - 판굿(마패예술단) 등
 - *체험마당 - 도자기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천연염색, 우산만들기, 창포비누 만들기, 화전만들기 등
 - *민속놀이 - 손가마타기, 투호, 팔씨름, 제기차기 등 (경기별 상품마련)
- 문 의 : 669-5050 (서산문화원 사무국)
※ 행사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래와 같이 수료식과 발표·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무대와 전시가 펼쳐지며 수료식 후에는 책거리 떡을 나눠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6월 29일(화) 10:3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전 시 : 서산문화원 문예관람실(6.29~7.1 3일간)
- 발표내용 : 요가, 벨리댄스, 바이올린, 플롯, 난타, 전통무용, 장구, 민요, 메이크업 시연, 다도 등
- 전시내용 : 네일아트, POP예쁜글씨, 폼아트, 가베, 수채화, 한국화, 도예, 서예, 경필, 어린이북아트 등
- ※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통음식체험' 참여자 모집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게 함으로써 우리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전통음식 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 시	대 상	내 용	인원
2010. 5. 28 (금)	부모와 자녀	과편, 다식	20명
2010. 6. 4 (금)	부모와 자녀	과편, 다식	20명
2010. 6. 11 (금)	부모와 자녀	원소병, 대추초	20명
2010. 6. 18 (금)	부모와 자녀	원소병, 대추초	20명
2010. 6. 25 (금)	성 인	구절판, 탕평채	20명
2010. 7. 2 (금)	성 인	구절판, 탕평채	20명

- 체험시간 : 오후 4시 ~ 6시
- 참 가 비 : 1인당 5,000원(성인, 아동 구분없음)
- 접수일시 : 아동체험 - 5월 20일(목)부터 총원시
성인체험 - 6월 10일(목)부터 총원시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무국(669-5050)

瑞山文化院



시 | 정 | 소 | 식

숨은금속찾기 프로젝트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추진

환경부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는 폐휴대폰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및 녹색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6월말까지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만 9천대의 폐휴대폰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이 중 약 47%인 9천대의 폐휴대폰만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과 서산시에서는 폐휴대폰 수거·재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행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0. 5. 12 ~ 6. 30(50일간)
- 추진대상 : 서산 전(全) 시민(행정기관, 초·중등학교, 대기업 등)
- 추진목표 : 3,500대 수거(충남 5만대, 전국 100만대)
- 주요내용 : 폐휴대폰 배출 편의를 위한 수거함 및 마대를 설치하여 집중수거 후 재활용 처리
- 수거함 설치 장소 : 시청 환경보호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 처리계획 : 재사용 매각 또는 공개매각,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 캠페인 포상 및 경품행사(전국행사)

- 주 최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경품 내역 : 가전제품(500만원 상당)
- ◆ LCD 47" TV(1대), 최신노트북(1대), MP3(5대), 백화점상품권(20매), 문화상품권(100매)
 - ※ 단, 제세공과금(22%)은 본인부담
 - ※ 경품 내역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경품협찬 :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모토로라, KT테크
- 경품 응모 방식 : 참여자 성명, 연락처를 경품 응모권에 기재 방식
- 경품 응모권 제공 및 수거 방법
- 경품 응모권 제공 : 폐 휴대폰 본체 1대당 경품 응모권 1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 660-2335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김기홍 (서산시 지곡면) 10,000원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이은숙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김동주 (서산시 해미면) 2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장덕훈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유배곤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유영규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 신 옥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 이홍란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이소영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최민규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변은주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 김종선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석림동) 5,000원 | • 임갑순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 100,000원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 3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